



국내 처음으로 열린 폴란드 신세대 판화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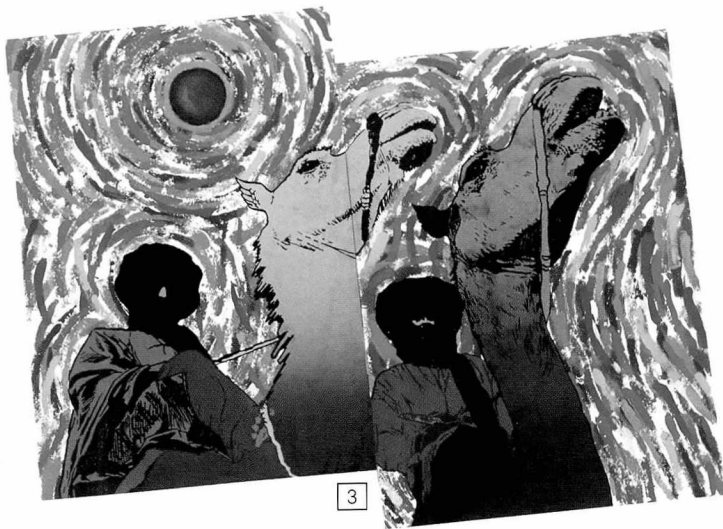
2

전통기법에서 디지털인쇄까지

폴란드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신세대 판화 예술가들의 독특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개최됐다.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9일까지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갤러리에서 열린 “폴란드 독수리-2006 폴란드 신세대 판화전(Polish Eagles 2006- Young Polish Print in Seoul)”이 바로 그것.

이 행사에서는 주한폴란드대사관과 폴란드 크라코프 소재의 국제 그래픽 아트 트리엔날레 협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가 후원하는 전시회로 폴란드의 유명 신예 작가 51명의 판화 작품 90여 점이 선보였다. 이 전시회에 참여한 판화 예술가 51명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제 막 미술대학을 졸업한 촉망 받는 신인은 물론, 젊은 나이에 불구하고 국제 대회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한 작가 등 폴란드가 자랑하는 젊은 실력과 작가들로 구성됐다. 이 행사가 남다른 의미를 갖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폴란드 현대 판화 전시회라는 점, 또 다른 하나는 다양한 판화작품 전시를 통해 현대 예술의 경향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6 폴란드 신세대 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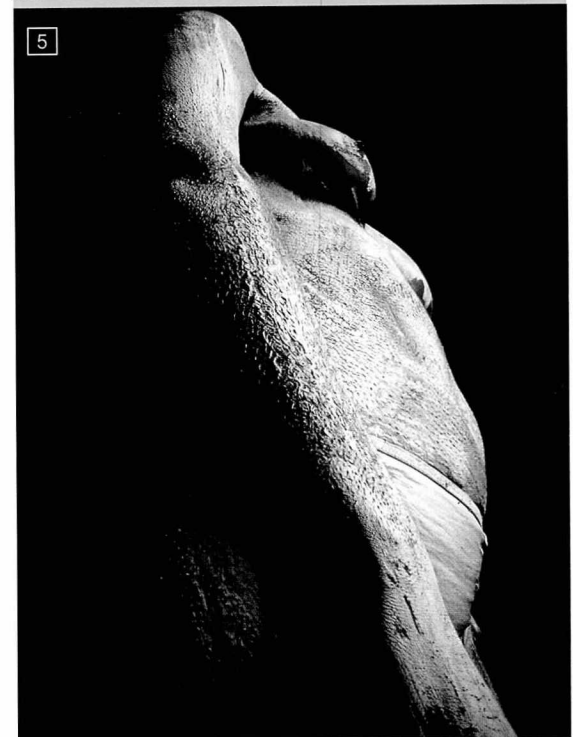


3

전에서는 실크스크린 인쇄, 석판인쇄, 리놀륨 판화 등의 전통적인 기법을 이용한 작품부터 디지털 인쇄, 멀티미디어 작품 등의 최첨단 기법을 활용하여 완성한 작품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완성된 작품뿐만 아니라 작품이 완성되기까지의 순차적 인쇄기법의 모든 단계도 함께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2006 폴란드 신세대 판화전은 각기 다른 방식을 통해 표현된 작품들의 색깔과 맛을 음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볼 수 있다.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마그달레나 비엘레츠키(Magdalena Bielecka)의 실크스크린 채색 인쇄 작품 <폴트리 여사>, <헤링 여사>와 마우고자타 야브웁스카(Malgorzata Jablonska)의 <무질서한 알갱이들>, <친칠라 이야기>, 그리고 테어도르 두르스키(Teodor Durski)의 <불안정>시리즈는 전통적인 판화의 범주 안에 한정시킬 수 있는 성향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채 화려하고 정교한 판화기법을 응용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 이보나 쿠르(Iwona Cur)는 고전적인 기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리놀륨 판화를 선보였으며, 필립 샌달(Filip Sandal)의 디지털 인쇄 작품, <정체성>시리즈는 디지털 페인팅이라고 부르는 작업이 판화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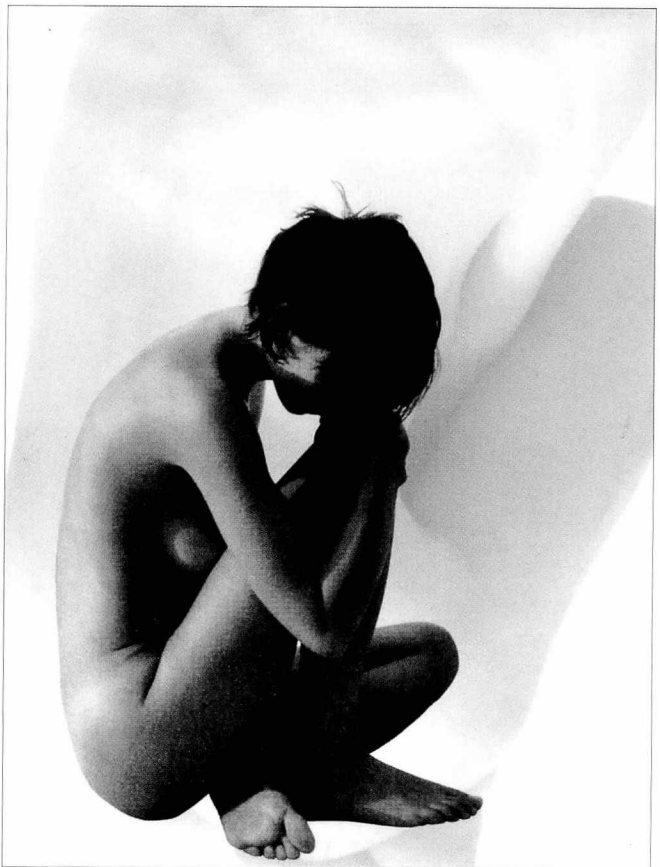


5

1. 전시회 내부
2. 마그달레나 비엘레츠키작, <폴트리 여사>, 실크스크린
3. 요비타 발네르작, <하늘로 가는 하이웨이>, 리놀륨 판화
- 4~5. 필립 샌달작, <정체성>시리즈, 디지털 프린트



마그달레나 비엘레츠카작, <헤링여사>, 실크스크린



유디타 베르나쉬워, <대상>시리즈 중 13, 디지털 프린트

한마디 | 비틀르 스클리츠 소장(폴란드 국제 그래픽 아트 트리엔날레)

“양국 공감대 형성의 발판 되기를”

‘폴란드의 독수리들 - 2006 폴란드 신세대 판화 전시회’는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폴란드 현대 판화 전시회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양국의 예술가들 사이에 교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예술가들은 ‘크라쿠프 판화 트리엔날레’와 ‘서울 판화 트리엔날레’를 중심으로 나름대로 그 교감의 역사를 쌓아왔습니다. ‘크라쿠프 판화 트리엔날레’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 열풍이 일어났는데, 이는 비단 트리엔날레에 참가하는 한국 예술가들의 숫자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 작가들이 본상을 수상한 데 힘입은 바 큼니다. 폴란드의 예술가들 또한 서울에서 여러 차례 수상을 했는데 1982년과 1996년에 각각 ‘서울 판화 트

리엔날레’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막시밀리안 스노흐(Maksymilian Snoch)와 크쥐슈토프 쉬모노비츠(Krzysztof Szymonowicz)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이야말로 국민들의 단결된 노력으로 ‘아시아의 호랑이’라는 영예로운 호칭을 획득한 민족이기에 ‘폴란드의 독수리들’이라는 전시회의 표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 표제는 폴란드 판화를 대표하는 젊은 예술가들의 창조적 용기와 희열, 그들의 무한한 실험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용기와 실험정신은 눈부시게 빠른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예술가들에게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젊은이들은 이미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폴란드의 젊은 예술가들은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창조한 예술은 완벽하게 새로운 것일까요? 젊은 세대의 판화는 전통과의 관련을 완전히 무시하고 컴퓨터의 유혹에 굴복한 것일까요? 지금껏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왔던 다른 예술 분야와의 경계, 특히 사진이나 디자인과의 경계는 이제 정말로 무너져버린 것일까요?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그럴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도 확인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전시회를 통해 소개된 작품들이 앞으로 판화의 미래를 논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쪼록 서울에서 개최된 이 전시회가 앞으로 다른 문화적 전통을 일구어 온 양국의 예술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